



SWC 작업발판에서 떨어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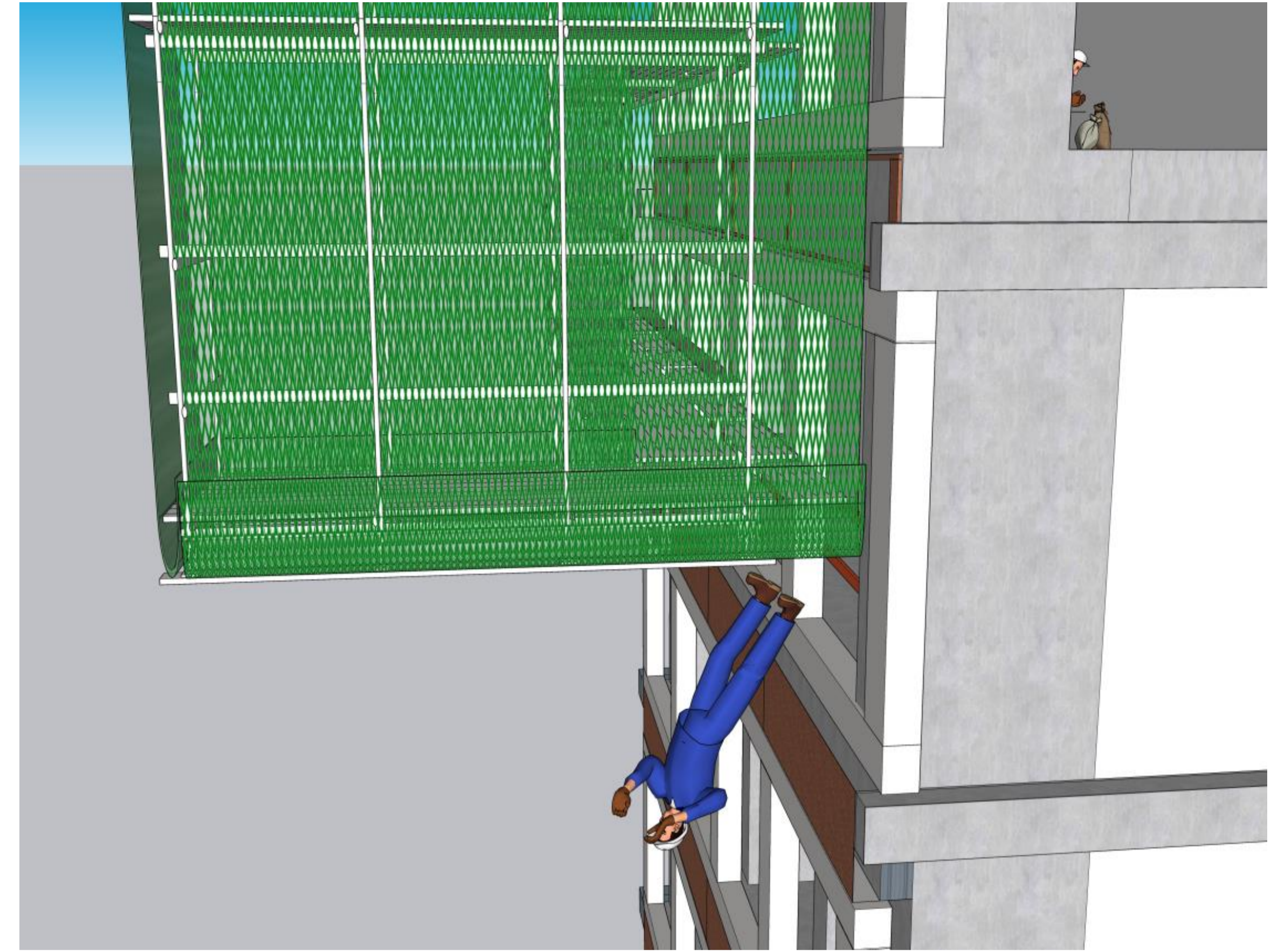


재해개요

발생형태	부상 정도	연령	직종
떨어짐	사망	56세	패널공

2022년 00월 00일(화) 경남 소재 주상복합 신축현장에서 피해자가 SWC 작업발판 위에서 커튼월 설치 작업 중 중심을 잃고 개구부로 떨어져 (H≒21m) 사망한 재해임

- SWC(safety working cage) : 외벽 마감공사를 위한 일체형 작업발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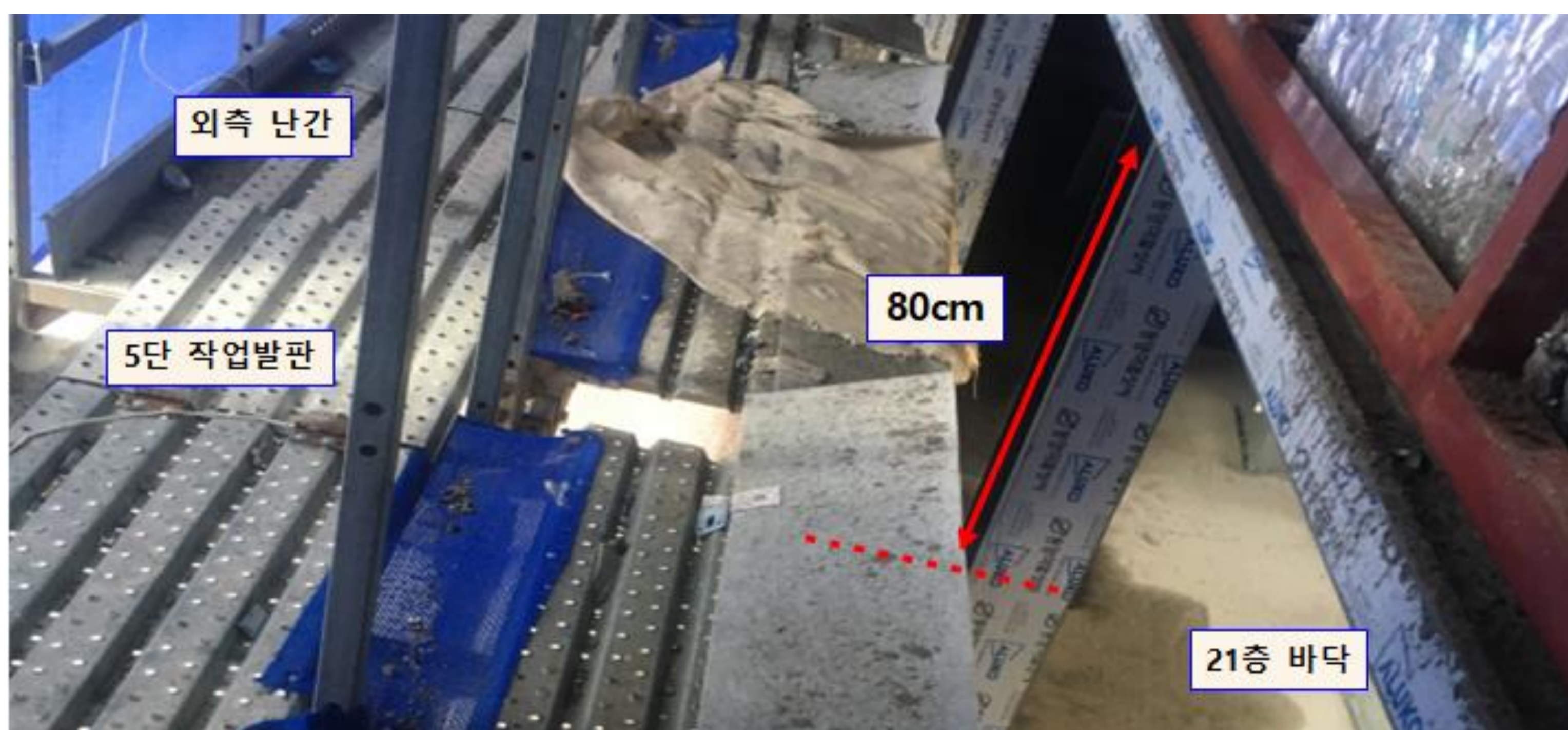


유사사례

2021.04.24. 인천시 남동구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T/C 인상작업 중 Wall Bracing 설치를 위해 갱폼 작업발판으로 이동하던 중 바닥 개구부를 통해 떨어짐

작업상황

- (커튼월 설치) 건물 21층 높이 외벽에 설치된 SWC작업발판에서 커튼월 고정작업을 진행
- (추락방호조치) SWC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에는 커튼월 설치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높이 약 80cm의 개구부가 발생, 안전대 미체결 상태로 작업 진행



[SWC 작업발판과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]



[건물 내부에서 바라본 모습]

예방대책

- 1 개구부 등의 추락방호조치 철저**
 - 작업발판 단부와 같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안전난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개구부(발판단부 및 커튼월 사이)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함
- 2 위험성 평가 실시 철저**
 - 커튼월 설치작업 시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, 이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한 경우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

※ 본 OPS는 동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이 재해 발생 상황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